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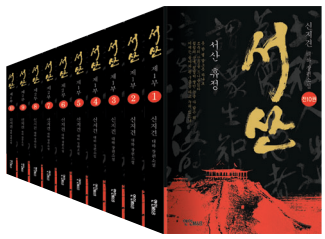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9 ~ 4/15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내게와 부딪히는 배교도 생애(김기영)에 남는 영법	편집부	불광출판사
2	비율수록 가득하네	정목	쌍앤파커스	7	인생이 웃어라	원영	캘리온
3	깨달음을	법륜	정토출판	8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세주요법동 1)	두비	담앤북스
4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명규 붓다(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정중천	운주사
5	화되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슌모	담앤북스	10	마음 뛰는 비결(해안 스님 선어록 강설)	동명	나라연



온몸으로 '공동선' 실천한 서산대사

서산(전10권) 신지전 지음 | 연인M&B 펴냄 | 각권 1만2천원



책은 임진왜란 당시 73세의 노구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일으켜 구국에 앞장섰던 서산대사(휴정·1520~1604)의 생애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은 많지만 서산대사와 의승군을 다룬 것은 많지 않다. 전 10권으로 출간된 소설 <서산>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산대사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흔히 권력이 억압적인 구조일 때는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런 저항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도 역시 그런 저항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

습니다. 유학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워 척불(斥佛)을 합리화한 조선 중기의 사회는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항을 불러들인 단초가 되었으며, 소설 <서산>에서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내세워 갈등의 플롯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러한 저항적 진정성의 상징인 서산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서산대사가 누구이며, 그가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간은 서산대사의 의발과 유품이 모셔진 해남 대흥사의 주지 범각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했다. 범각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위와 같이 말하고 7년이 걸린 이번 출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이번 출간은 4월 28일 서산대사의 탄신 491주년을 앞두고 계획된 서산대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이다. 범각 스님은 서산대사의 업적과 사상 등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보고 서산대사의 재조명 작업에 진력해 왔다. 2007년 범각 스님은 대흥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신지전 작가에게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집필을 요청했고 이듬해 <서산 사상과 신자유주의>라는 책(논문)이

서산대사의 생애 소설로 재조명 집필 7년, 범각 스님 출간 도와

출간됐다. 이후 범각 스님은 서산대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논문보다는 문학작품(소설)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설 <서산>을 제안했으며, 대흥사에 보관된 방대한 서산대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설<서산>의 출간을 이끌었다.

국가를 '공동선'이 실현되는 하나의 울타리로 볼 수 있다면, 소설 <서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인 사회의 극리(極難)현상, 양분화의 불공평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역사라는 거울에 투사한 소설이다. 한국 사회의 불공평과 구조적 모순의 기원을 우리 역사에서 찾고 있다.

그릇된 양반 문화와 부패 구조에 대항하는 분자적 탈주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서산>은 혁명을 꿈꾼 세력들이 임진왜란을 만나 혁명의 꿈을 접고 민족 종말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극명하고도 유려하게 그려내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에서 예견에 맞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기독교

사대부들이 아니라 의병과 의승병을 포함한 민초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역사적 결과의 수용만이 아니라 과정을 탐색하며 역사적 '사실(史實)'을 재해석했다.

작가는 "서산대사는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진 분이 아니었다. 더구나 경쟁을 부추긴 분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위기에 섰을 때 칼을 들고 일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모두의 국가임을 보여 주었다. 공동선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의 우리 사회를 공동선이 실현되는 울타리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소설 <서산>은 역사적 관계망에서 유기적으로 창조된 인물과 사건,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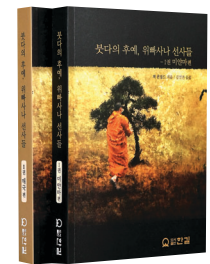
<서산>은 나라 안팎으로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조선 중기의 역사적 현실 상황들을 유·불·선을 깊이 있게 넘나드는 치밀한 구성과 속도감 있는 전개, 짝임에 있는 줄거리와 개성 있는 등장인물 등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산>은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위빠사나를 이어가는 선지식들

붓다의 후에, 위빠사나의 선사들 1·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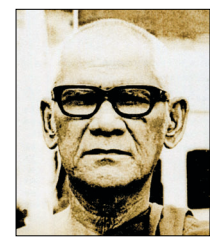
책 콘필드 지음 | 김명연 옮김 | 각권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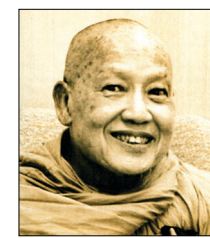
위빠사나는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원형 수행법이다. 책은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전파해온 미얀마와 태국의 위빠사나 선지식 15명의 가르침과 수행법들을 망라한 수행지침서로 세계적인 불교 학자이자 서양의 대표적 명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책 콘필드가 수행과정에서 겪어온 일화나 대담과 함께 테라바다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엮었다. 불교경전에 적혀 있는 부처님 수행법들

인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책으로, 남방불교의 의례·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시킨 선지식들의 법문과 수행법, 근거와 개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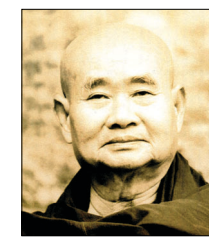
이 책은 이들 위빠사나 수행법들은 물론, 미얀마와 태국의 최신 수행법들도 총망라하고 있다. 미얀마 스승 사야도의 아라한 경지를 실현한 수행법, 태국의 전설적 선사인 아찬 문의 연기 통찰로 아라한과를 실현한 체험담, 타웅푸루 사야도의 부정관,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모국 사야도의 수행법, 아찬 나에브의 생활 속 깨달음을 체험하고 고(古)를 강조하는 수행법, 자비관과 사마타선정, 위빠사나를 함께 근거에 따라 지도하는 아찬 쯤니엔의 수행법 등, 다양한 수행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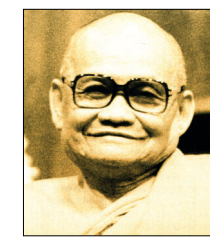
마하시 사야도



아찬 쯤니엔



파옥



아찬 차

은 모두 위빠사나라 할 수 있다. 아함경(니까야)은 물론, 반야심경의 반야로 조건(照見), 금강경의 사구계(薩耑非相 卽見如來), 화엄경 10지품의 현전지 등, 모든 경전들이 위빠사나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편자자인 책 콘필드는 평화봉사단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다 출간 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전역의 사원을 순례하며 오랜 세월 수행을 쌓았다. 그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은 부처님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테라와다 불교수행의 특성과 심오한 단순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수행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선지식들의 수행체험과 수행법, 생활모습 등이 붓다의 전통적인 법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불어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및 티베트 불교와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도 질문형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구에서 다년간 베스트셀러로서 서구

이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수행자라면 초보자든 전문수행자이든 누구나 탐독하면서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책은 남방 아비담마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니까야경전에 입각한 미얀마 선지식들의 수행법과, 대승법을 포함할 수 있는 태국 선지식들의 위빠사나 수행법 등, 불법의 다양한 수행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보자의 수행법부터 구경각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는 수행법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수행자라면 누구에게나 도움 되는 '전천후(全天候) 수행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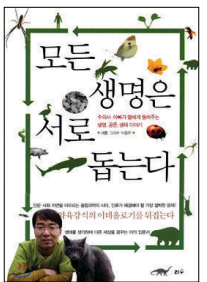
전문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인간관계, 작업능력 향상, 잠재능력 개발, 자아의 실현 등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행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수행법을 응용하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번뇌 등을 근원적으로 치유·구결할 수 있어, 심신(心身)의 힐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과도한 육식 멈추지 않는 한 인류 미래 없어”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박종우 지음 | 리수 펴냄 | 1만 7900원



이 책은 약육강식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생명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수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문체로 쉽게 정리한 책이다. 약육강식의 왜곡된 생명관은 자본의 논리와 닮았다.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해서 공존의 미덕은 파괴됐다. 지금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동물들은 고통받고, 아마존의 밀렵은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은 유전자가 재조합된 식품을 섭취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 책은 '공존'이라는 자연의 법칙

을 거슬러온 약육강식의 현실을 낱알이 파헤침으로써, 일그러진 우리의 생명 구도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약육강식 논리로 합리화 될까? 수의사인 저자는 소에게 자주 일어나는 병인 고창증을 처음 배우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수의사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가 꼬여서 죽어버리는데 수의사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수의학의 외과수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도 소들이 멸종되지 않고 존속했다는 것이 신기했지."

그러나 고창증은 애초에 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병의 발발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소에게 풀이 아닌 옥수수 먹이로 인해 위 내에서

급격하게 세균이 증식되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외에도 동물원의 동물들과 반려 동물 문제 등 학대받는 다양한 동물들 보여줌으로써, 약육강식의 논리로 합리화된 동물 학대의 현실을 짚어 준다.

공존법칙 거스른 약육강식 파헤쳐 가장 큰 대안은 생태적인 삶

약육강식이 아닌 근거는 무엇인가? 차별주의가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진화'의 개념은 백인 우월주의·남성 우월주의,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에 이용되었고, 다른 생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지구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인간이 강해져서

아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해왔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생명의 속성이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의 관계임을 진화, 공생명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관점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생태적인 삶을 산다는 것 과학자들은 2030년을 오일 피크라 예상한다. 지금처럼 과도한 육식과 풍족한 에너지 생활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밝지 않다. 혹자는 과학 발달이 오일 피크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원칙적으로 에너지 소비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저자는 생태적인 삶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태적인 삶이란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김주원 기자 kimj4217@hyunbul.com

향적 스님의 선지해설

선시, 禪詩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스님 해설 | 13,000원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값진 체험과 깊은 사색으로 걸러 낸 언어, 그리고 깨달음의 정서로 풀어놓은 선적 통찰력들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향적 스님은, 이 선시의 해설을 통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읽는 안목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응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과 내통하고 부처와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정휴正休 스님

조계종출판사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_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부담_ 조계종출판사 서적총판사부업 02)998-5847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가는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에스24/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전국전 판매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공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